



SU-대학혁신지원사업 웹소식지

2019 **Vol.2**



삼육대학교
대학혁신지원사업단

University Innovation
대학혁신지원사업

SU-대학혁신지원사업 웹소식지

2019 Vol.2

CONTENTS



학생참여형 지역사회 돌봄마을 프로젝트 1-2

- 학생참여형 지역사회 돌봄마을 프로젝트 소개
- 참가자 인터뷰



인성교육 공동체리더 HOPE 캠프 3-4

- 인성교육 공동체리더 HOPE 캠프 소개
- 일정 및 실행
- 참가자 인터뷰 '어나미' 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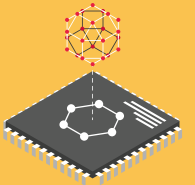
Change the World 5-6

- Change the World 소개
- 참가자 인터뷰
- 프로그램 기획자 인터뷰



캡스톤디자인 경진대회 7-8

- 캡스톤디자인 경진대회 소개
- 참가자 인터뷰



SU-Innovation Academy 9-10

- SU-Innovation Academy 소개
- 원장 인터뷰



취업동아리 11-12

- 취업동아리 소개
- 참가자 인터뷰



글로벌 역량 키우기 프로젝트 13-15

- 서비스러닝 전공 교과목, 글로벌 창업연수 소개
- 담당자 인터뷰
- 참가자 후기

'돌봄'을 제공합니다

• 학생참여형 지역사회 돌봄마을 프로젝트 •

지역공동체와 대학이 연계하여 지역사회를 살리기 위해 시작된 학생참여형 지역사회 돌봄마을 프로젝트. 이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어려움이 있는 지역사회 곳곳을 위해 학생들이 프로그램 선정부터 기획, 실행에 이르기까지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이다. 2019년 여름, 처음 시작된 이 프로그램에서는 다양한 학생숍이 운영되고 있다.

학생참여형 지역사회 돌봄마을 프로젝트에 어떤 학생숍이 있는지 살펴보자

학생숍 소개

1. 건강찾아 떠나자

산책 또는 간단한 놀이를 통한 운동과 즐거운 시간

• 서비스 개요 •

신체활동이 부족한 노인, 지체장애인분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도구를 활용한 활동, 운동을 도와드리는 서비스

2. EWL

한글과 일본어를 다양한 방법으로 배우기 (학습지, 영화, 퍼즐 등)

• 서비스 개요 •

수혜 대상자의 언어능력과 관심 있는 분야에 따라 나누어 미디어 학습을 통해 한글과 일본어를 배우는 활동 서비스

3. NOT ALONE

“집으로” 찾아가는 주거지 환경개선 서비스

• 서비스 개요 •

독거노인의 주거지 환경개선과 단열시공을 하며, 외출서비스를 제공

4. 노인과 상육

“집으로” 찾아가는 도시락 배달 서비스!

저염식, 채소위주, 맞춤형 식단!

• 서비스 개요 •

영양 균형을 맞춰야 하는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젝트로 저염식, 채소 식단을 준비하여 도시락을 구성하고 직접 자택으로 배달하는 서비스

5. 동행길

마트가서 장도 함께 보고, 집으로 배달과 정리까지!

• 서비스 개요 •

수혜 대상자와 함께 장보기, 장 본 거 정리, 음식 조리, 같이 밥 먹기, 설거지하기 등을 함으로써 서로 상호 소통하는 서비스

6. 보드게임 다방

경로당에서 펼쳐지는 고스톱 경연대회! [치매예방 프로젝트]

• 서비스 개요 •

치매예방, 우울증예방을 목적으로 어르신들의 놀이인 고스톱을 이용하여 경연대회를 진행하는 서비스

7. 요술램프 362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맞춤형 복지혜택 신청 서비스!!

• 서비스 개요 •

복지혜택이 부족한 수혜자를 위해 복지혜택을 조사하고 이에 대한 맞춤형 자료를 제작 및 알림 활동, 필요 시 해당 센터에 같이 방문 하거나 인터넷으로 복지혜택 신청도 도와주는 서비스

8. 예그리나

“집으로” 찾아가는 차와 함께하는 다양한 ‘취미활동’ 서비스!

• 서비스 개요 •

차 한잔과 함께 대화를 하고, 노인들이 새로운 취미를 경험해 볼 수 있는 서비스

9. 우리가 갑니다

“집으로” 찾아가는 ‘미용’ 및 주거 서비스! 커트, 염색, 뽕뽕이까지-

• 서비스 개요 •

미용서비스(헤어컷트 및 염색), 주거 편의(청소)를 도와드려 삶의 질 향상과 외로움 개선 및 미용욕구 개선 등을 돕는 서비스

10. 이야기 꽃

노인 치매예방을 위한 ‘말벗’ 활동과 ‘꽃’ 테라피

• 서비스 개요 •

말벗 활동, 산책하기, 만들기 활동을 제공하는 서비스

11. 찾아가는 영화관

원하는 영화를 우리집에서 편하게 보는 맞춤형 영화서비스

• 서비스 개요 •

대상자에게 맞는 맞춤형 영화관을 만들어 함께 영화를 보고 대화를 나눈다.

INTERVIEW _ 인터뷰



'노인과 삼육' 참여 중인
카메카트로닉스 14학번 김태현 학우



'Not Alone' 참여 중인
생활체육학과 14학번 이민환 학우

Q. '노인과 삼육'이라는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A. 같이 프로젝트를 기획하던 학생들 중 한 명이 다른 봉사 기관에서 도시락 봉사를 했었는데 스스로 식사를 해결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라고 말을 해주어 도시락 봉사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1주일치 식사를 준비하여 한 번에 전달하는 다른 봉사활동과 달리 주 2회 직접 자택을 방문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여 단순히 도시락만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안부를 확인하고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을 통해 외로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하였습니다.

Q.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무엇인가요?

A. 프로그램 기획 중 가장 우려했던 부분은 어르신들이 처음 보는 저희를 낯설어하시고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하는 점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봉사를 나가보니 어르신들이 너무 친근하게 해주셨습니다. 그 덕에 이야기도 많이 나누며 보다 즐겁게 봉사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Q. 'Not Alone'이라는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A. 평소에 독거노인 분들에게 가장 도움이 필요한 부분 중 하나가 주거 편의 서비스라고 생각했습니다. 식사나 여가활동에 관련된 봉사활동은 많은 것에 비해 주거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봉사활동이 적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Q.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무엇인가요?

A. 아무래도 첫 서비스를 제공했을 때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날씨가 추운 날이었는데 어르신께서 추운데 일하지 말고 앉아 있으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다 같이 둘러앉아 1시간 넘게 어르신이 살아오신 삶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듣기만 해도 마음이 아픈 사연들이 많아 어르신에게 더 많은 도움을 드리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어르신의 집 이곳저곳을 수리하게 되었는데, 그냥 봉사활동을 했을 때보다 훨씬 보람차고 기분 좋게 봉사할 수 있었습니다.

마무리

인성교육원 윤아름 담당자는 “학생참여형 지역사회 돌봄마을 프로젝트의 경우 단순히 봉사활동 시간만 인정되는 다른 봉사활동과 달리 봉사활동 시간은 물론 3차례 이상 서비스 제공 시 근로비 지급, 활동비 지급, 우수팀 상금 지급, MVP+2.0 프로젝트 대체 가능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는 활동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학생들이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하고 준비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후에 창업으로 연결될 수 있지 않을까하는 기대도 된다”고 말했다.

봉사활동을 준비 중인 학생이라면, 다양한 혜택은 물론 미래를 준비하는데도 도움이 되는 학생참여형 지역사회 돌봄마을 프로젝트에 참여해보는 것은 어떨까.

인성교육 공동체 리더 HOPE 캠프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전인적 역량 강화 캠프
너도 참여해보!

HOPE 캠프란?

인성교육원에서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에게 창의적 사고나 글로컬 디자인 등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사회 공헌에 대한 이해를 돕고 글로컬 사고를 효과적이고 능동적으로 함양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일정 및 실행

HOPE 캠프는 1박 2일로 진행되며 비교과 통합시스템이나 인성교육원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동안 사회공헌을 주제로 하는 '학생참여형 지역사회 돌봄마을 프로젝트'와 우리 대학의 6대 핵심 역량(△시민의식 △소통 △창의적사고 △자기 주도 △글로벌 △나눔 실천)을 주제로 하는 'MVP+2.0 프로젝트' 둘 중 하나의 카테고리를 선택하여 팀을 구성하게 된다. 위와 같은 방식으로 구성된 팀은 각 카테고리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되고 실행기간 동안 학교에 실행 보고서, 예산서,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각 팀은 최소 5명에서 21명의 인원으로 구성되며 활동 기간에 따라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50만원의 활동비가 지원된다.

HOPE 캠프

'어나미' 팀



우리 대학 보건관리학과 16학번 김민아, 신승원, 박세미, 추현경 학우로 구성된 어찌면 나의 미래에게, '어나미' 팀은 '나눔의 행복 선한 영향력의 가치를 전달한다.' 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어나미 팀은 지역 독거노인들을 위한 농작물 나눔 서비스 '뚜벅초가 간다', 중년 우울 해소 프로젝트 '응답하라 중년' 등의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운영하였다.

위와 같은 성공적인 프로그램 운영의 배경에는 'HOPE 캠프' 에서의 프로그램에 대한 전문적인 코칭과 다양한 학생들의 피드백이 있었다고 한다. 어나미 팀의 신승원(보건·16)학우는 '만약 무작정 프로그램을 기획했다면 위와 같은 성과를 내기는 어려웠으며 HOPE 캠프를 통해 양질의 프로그램을 기획할 수 있었고 지속할 수 있었던 것 같다.'라고 전했다.



끝으로 HOPE 캠프 참여를 고민하고 있는 학우들에게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것에 있어 막연하게 어렵거나 부담가지지 말고 많은 학우들이 HOPE 캠프에 참여하여 개인적으로나 팀적으로 큰 성장을 거두기를 희망한다'라고 전했다.



Change the World

• 학생 중심, 과정 중심, 지역사회 중심 •

Change the World 프로젝트는 학생을 중심으로 각자의 전공을 살려 봉사활동을 계획하고 미얀마 현지에서 직접 계획한 봉사활동을 수행하는 프로젝트로, 이 과정을 통해 봉사를 제공받는 당사자뿐 아니라 봉사를 제공하는 학생 스스로도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국외 봉사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젝트는 2019년 하계 계절학기에 처음 시행되었다. 교수나 인솔자가 봉사활동을 이끄는 형태였던 다른 봉사활동 프로그램과 달리 학생이 봉사활동을 이끄는 경험을 할 수 있다.

참가자 INTERVIEW

화학생명과학과 한예서(19학번)



Q.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A. 해당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같은 과 선배가 함께 해보지 않았냐고 권유하여 이 프로그램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저희 과의 교수님께서 해당 프로그램에 대하여 설명해주는 것을 듣고 직접 봉사활동을 준비하고 해외에 나가 봉사를 해보는 경험을 해보고 싶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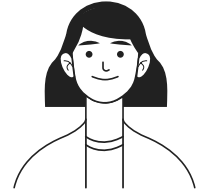
Q.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무엇인가요?

A.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언어의 장벽이었습니다. 미얀마에서는 영어보다 미얀마어를 더 많이 사용합니다. 따라서 영어로도 소통이 어려운 경우가 자주 있었습니다. 그러나 간단한 미얀마어 회화를 공부하면서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 봉사활동 경험을 계기로 다른 국가를 방문할 때 해당 국가의 언어를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Q.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일은 무엇인가요?

A. 가장 인상 깊었던 것 역시 언어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언어가 잘 통하지 않아 다소 의기소침해 있었지만, 아이들이 협조를 아주 잘해주는 부분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언어가 통하지 않더라도 마음으로 소통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식품영양학과 정규미(19학번)



Q.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A. 이전부터 해외 봉사가 어떤 활동을 하는지 궁금했으며 전공과 관련된 여러 경험을 쌓고 싶던 차에 학과 선배가 이 프로그램을 홍보하는 것을 듣게 되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Q.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무엇인가요?

A. 언어가 달라 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점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에 같이 간 팀원이 약 15명 정도였는데 통역사는 한 명밖에 없어 소통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학생들끼리 미얀마어를 공부하고 혼자서도 회화를 공부하여 이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Q.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일은 무엇인가요?

A. 다양한 전공을 가진 학생을 만날 수 있었던 점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여러 학과의 학생들이 함께 가는 해외 봉사였던 만큼 그동안 만나보지 못했던 다양한 학생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타 학과 학생들과 만나 이야기를 하면서 그동안 쌓았던 전공을 서로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봉사를 간 시설에 계신 분들에게도 전공 수업을 통해 배웠던 지식을 나눠드리면서 보람을 느꼈습니다.



Q.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A. 학과 게시판에 올라온 공고를 통해 이 프로그램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확히 어떤 프로그램인지는 몰랐지만 해외 전공연계 봉사의 일환이라는 점만 알고 있었습니다. 이전부터 전공을 살려 해외봉사를 가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Q.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무엇인가요?

A. 프로그램의 전반이 학생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이 가장 부담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기획부터 준비에 이르기까지 학생들끼리 모여서 준비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아이디어를 내고 의견을 모으는 것조차 어려워 시간적, 정신적으로 많은 노력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봉사활동이 끝난 후 훨씬 더 큰 보람과 뿌듯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Q.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일은 무엇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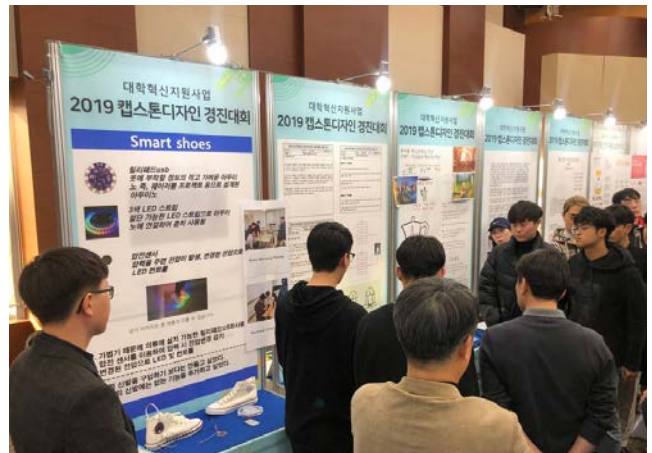
A. 봉사활동 자체도 보람찼으나 Change the world 프로젝트 사업계획서를 발표한 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같은 팀 학생들뿐 아니라 미얀마 기관담당자, 삼육대학교 관계자, 현지 방송국 앞에서 사업계획서를 발표해야 했기에 긴장도 많이 되었습니다. 또한 시간이 촉박하여 미리 맞춰보지 못한 채 PT가 진행되었기에 불안한 마음도 컸습니다. 그러나 서로를 믿으며 눈을 마주치고 소통하려고 노력하자 많은 사람들에게 계획했던 의도가 잘 전달된 것 같아 뿌듯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공 연계 봉사를 통해 봉사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진로에도 도움이 되는 Change the World 프로젝트에 보다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Change the World를 기획한 사회복지학과 이태경 학생은 “이 프로젝트는 ‘학생중심, 지역사회중심, 과정중심’이라는 3가지의 원리를 중요시하는 프로젝트이다. 따라서 이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봉사활동을 하면서 겪게 되는 여러 상황에 부딪혔을 때 너무 좌절하지 말고 봉사를 하는 것 자체를 즐겼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해당 프로그램은 2019년, 2020년, 2021년까지 총 3년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해외 봉사를 꿈꾸는 학생이라면 올해 여름 Change the World 프로젝트에 지원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캡스톤디자인 경진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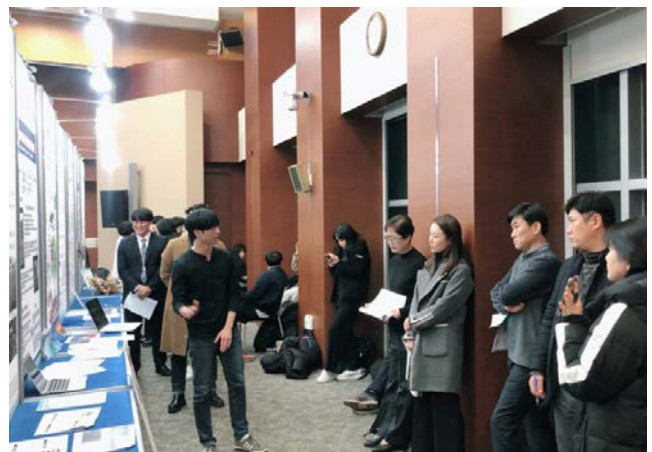
잠깐! 캡스톤디자인이란?

기존의 이론 중심 강의에서 변화하여 현실 문제에 적용 가능한 과제 및 시제품을 학생들이 직접 기획, 설계, 제작하는 과정을 포함한 강의이다. 서울 시내 주요 대학의 3~4학년 학생의 30% 이상이 이미 캡스톤디자인 과목을 이수하였고, 일부 대학은 캡스톤디자인을 졸업필수과목으로 적용하였다. 올해 삼육대학교는 10개 학과에 캡스톤디자인 강의를 개설하였다. 산학협력지원센터장 김지영 교수는 2021년까지 모든 학과에 캡스톤디자인 강의 개설을 목표로 학생들을 위한 캡스톤디자인 강의의 체계화 및 질적 수준의 향상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캡스톤디자인 경진대회

2019년 12월 2일, 장근청 홀에서 캡스톤디자인 경진대회가 열렸다. 경진대회에는 2019년도 2학기에 캡스톤디자인 강의를 수강한 10개 학과, 40개 팀의 학우들이 참여했다. 학우들은 한 학기 동안 직접 기획하고 제작, 혹은 실시한 ‘현실 문제에 적용 가능한 과제 및 시제품’에 대해 발표하고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심사위원단은 지도교수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었으며, △창의성 △논리성 △완성도 △발표 충실도 △기대효과 등을 기준으로 평가가 진행되었다.



참가자 INTERVIEW

| 대상 | 똥까비팀

경영학과 '캡스톤디자인' 수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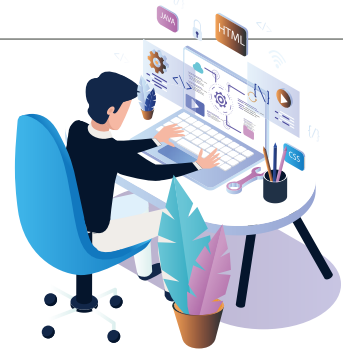
책과 강의자료를 통한 이론적인 수업과 다르게 직접 현실에서 부딪힐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 해결방안과 성과를 내보고 싶어서 수강하였습니다. 보통 경영학과면 사업계획서를 많이 작성하게 되는데 책과 논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하지 않고, 실제로 직접 현장에 나가서 서비스를 기획하여 제공하고, 이용자들을 대면하고, 장소를 대관한 것을 바탕으로 작성하다보니 어렵고 힘들었지만 굉장히 보람 있었습니다. 도깨비 시장에 공연팀 섭외 등 경제적인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SNS를 통해 인근 고등-대학교 동아리를 섭외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창출시킬 수 있었고 캡스톤디자인 경진대회에서 결과를 인정받아 좋은 결과를 얻게 되어 기쁩니다.

| 인기상 | Recreate 팀

사회복지학과 '국제개발협력과 사회복지(캡스톤디자인)' 수강

캡스톤디자인은 이공계열 학생들을 위한 강의인 줄 알고 있었는데, 사회복지학과에서 캡스톤디자인 과목이 개설되었다고 하여 신선하고 궁금해서 수강하였습니다. 교수님을 통한 일반적인 정보 전달이 아닌 자기 주도적이고 창의적인 문제해결을 중심으로 강의가 진행되기 때문에 교수님과 교류도 많았고, 같이 과제를 진행한 학생들과의 관계도 돈독해진 것 같습니다. 또한 준비했던 과제를 바탕으로 콜로키움을 개최하여 다른 학생들의 과제 및 문제해결방법을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SU-Innovation Academy’ 4차 산업 시대에 걸맞은 ICT 인재 양성 아카데미

4차 산업혁명 시대!

정보통신기술(ICT)의 융합으로 이루어지는 차세대 산업혁명인 4차 산업혁명은 이미 우리 생활에 자리 잡고 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다양한 기술들이 서로 융·복합하고 연결되어 경제·사회 전반에 혁신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이 시대에서는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자율주행차, 가상현실(VR), 드론 등 과거 상상 속에서만 가능했던 일들이 직접 체험이 가능할 정도로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삼육대학교는 대대적인 교육혁신에 나섰다. 급변하는 산업구조와 사회수요에 맞춰 교육과정을 새롭게 개발하고, 학사제도, 교수·학습지원, 산학협력, 교육환경, 교육인프라 등 학부교육 전반에서 ‘재창조’ 수준의 혁신을 이뤄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비전이다.

대표적으로 ICT 인재를 양성하는 ‘SU-Innovation Academy’가 있다.

경영정보학과, 컴퓨터공학부, IT융합공학과, 아트앤디자인학과를 융합하여 신설한 연계전공 과정이다. 총 4학기 체제로, 복수전공 및 부전공으로 선택할 수 있으며 36학점을 이수하면 융합기술학사 학위가 수여된다. 학점은 캡스톤 디자인과 마찬가지로 실습 위주의 평가로 진행된다. 연계전공 개설강좌에 있는 모든 과목은 학년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이 신청한 연계전공에 있는 과목을 이수해야 연계전공 학점으로 인정된다.

특히 전공 학생들과 비전공 학생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흐름에 맞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목적에서 설립된 만큼 비전공 학생은 프리스쿨(pre-school) 과정을 통해 4학기 정규과정의 지식 전반을 이해할 수 있도록 강의를 구성하였다.

‘SU-Innovation Academy’는 ▲ICT 융합 비즈니스, ▲지능형 빅데이터 처리, ▲ICT 서비스디자인, ▲인공지능(AI) 등 총 4개 과정이 개설되며 각 전공에 따른 전공교수가 수업을 진행한다.

▲ ICT 융합 비즈니스는 정보기술 발전과 산업의 상호작용을 경영학적인 시각으로 배우는 과정이다.

▲ 지능형 빅데이터 처리는 빅데이터 처리 기법을 활용하여 각 전공 영역마다 새로운 응용 분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배운다.

▲ ICT서비스디자인은 디자인-기술융합 역량을 갖춘 서비스디자인 실무 인재를 양성한다.

▲ 인공지능(AI)은 딥러닝을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의 기본 원리와 구현 방법, 다양한 학문과의 융합 및 응용 방법 등을 배운다.

이론은 주로 온라인을 통해 강의하며, 오프라인 수업시간은 기존 교수 중심의 전달 강의 방식에서 벗어나,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하는 팀 프로젝트 활동을 기반으로 진행한다. 팀 프로젝트는 3개 이상의 전공 학생들로 구성하며, 각 팀에는 2명의 교수진을 배정해 복합적인 프로젝트를 부여하며 다양한 관점의 학업 과정을 이수하게 된다.



마지막 4학기 교육 과정에는 교내 창업지원단과 연계한 ‘스타트업-프로젝트(Start Up-Project)’, 미국 인턴십 프로그램 ‘K-Move 스쿨’, 경영정보학과와 컴퓨터공학부가 진행하는 ‘**국내 ICT 인턴십(ICT Internship)**’ 등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

기존과 달라지는 점은 ‘개설 과목’과 ‘신청 방법’이다. 2019년 2학기에는 4학기 과정 중 ‘2학기’ 과정에 해당하는 과목만 열렸지만, 2020학년도에는 총 4학기 전체과정을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기존에는 SU-Innovation Academy 교육과정이 SU-WINGs에 적용되어 있지 않았으나 2020학년도 1학기부터 기존 연계전공과 같이 SU-WINGs에서 신청할 수 있다.

‘SU-Innovation Academy’의 원장 최성욱 교수는 “현재 4차 산업시대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삶을 살아가든 디지털 라이프를 떼놓고 살아갈 순 없을 것이다. 수업 과정을 통해 4차 산업 혁명에 대비한 논리적 사고력과 넓은 시야를 얻어갔으면 좋겠다.” 이어서 “관련 전공이 아닌 학생들은 망설일 수 있으나 충분히 따라갈 수 있도록 수업 과정을 준비했으니 많은 학생들이 선입견을 가지지 않고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취·뽐!



취업동아리 활동하면서 취업 보개보자~

삼육대학교는 재학생의 취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취업동아리를 직무별로 세분화해 운영한다.

취업동아리는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취업을 준비하고자 하는 개인과 단체의 학생들을 모집하여 직군, 직종별로 그룹을 배정해 재학생의 효율적인 취업준비가 가능하도록 취업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설립되었다.

취업동아리는 2019년 기준으로 ▲IT(개발), ▲IT(네트웍스), ▲공기업 ▲관광서비스, ▲기계설계, ▲디자인, ▲마케팅/MD, ▲병원/의료, ▲사회복지/상담, ▲생산/품질관리, ▲식품, ▲영업관리, ▲유통/물류, ▲인사/경영관리 등 17개 동아리로 꾸러졌다. 3,4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동아리별로 10명 내외의 인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총 144명의 학생이 참여하였다.

동아리는 모집 직무별로 개인 신청을 받은 후 구성된다. 기존 동아리의 경우 학생들이 동아리를 구성하여 신청 후 선발되며, 신규 동아리의 경우 모집 분야별 개인 신청을 받은 후 선발하여 동아리로 구성한다. 단, 외국어 및 컴퓨터 활용능력 습득, 전공 관련 스터디그룹, 자격증 대비, 간호고시, 교원 임용고시, 공무원 시험 등과 관련된 분야는 제외한다.

취업동아리는 공식 활동기간 동안 ▲직업세계의 정보탐색 활동, ▲선배 직업인들과의 교류 및 직업현장 관찰체험 활동, ▲미래의 진로계획 수립활동, ▲취업시험, 면접,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준비 활동, ▲기타 취업 관련 각종 자료수집 등의 활동을 진행한다.

우리 대학은 취업동아리의 활성화를 위해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 활동비는 동아리별로 연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실적에 따라 우수 동아리 5팀을 선정해 20~50만원의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또한 학생경력관리제도(마일리지 장학금) 점수로 300점을 부여하고 있다.

더불어 활동 지원 항목으로 취업동아리실 지원, 취업동아리 운영계획 수립 지도, 취업동아리 행사장소 지원, 담당 컨설턴트를 통해 취업지도 지원, 취업에 관한 취업특강 및 프로그램 개최, 직무별, 직종별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 및 아카데미 개최, 산업체 및 직업현장의 관찰 및 견학 기회 제공 등이 있다.



INTERVIEW

- 인터뷰



"마케팅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익혔어요"

● 변승우(중국어·15) 학우

취업에 도움이 되고자 취업동아리에 들어갔다. 특히 마케팅 부서에서 일하고 싶어 마케팅 분야 취업 동아리 'Plan B'의 부원으로 활동하였다.

취업동아리의 활동은 마케팅 분야의 지식이 전무한 나에게 매우 안성맞춤이었다. 부원들 간 취업 정보, 마케팅 관련 지식 등을 공유했다. 실제로 동아리 팀장이 현직자로 근무하여 마케팅에 대한 실무적 내용, 역량에 대해 상세히 배웠다. 그리고 마케팅 관련 영상도 시청하며 포토샵이나 일러스트 등 마케팅 관련 자격증에 대한 지식과 팁에 대해 얻었다.

가장 기억나는 활동은 외식산업 마케팅에 대한 정보를 얻고자 경북 영양군에 있는 장계향 문화체험교육원에서 1박 2일로 열린 한식외식산업포럼에 참여했던 활동이다. 동아리원들과 함께 방문했는데, 현직자에게 마케팅에 대한 조언과 우리나라의 외식산업에 대한 방향과 비전을 들을 수 있어 큰 도움이 되었다.

"영업의신이 되고자!"

● 조형찬(화생·15) 학우

이제 고학년이 되다보니 취업에 대한 관심이 자연스럽게 높아져 취업 관련 정보를 얻고자 취업동아리에 들어가게 됐다. 특히 제약회사 영업 직무를 희망해 취업 동아리 '영벤처스'의 팀장으로 활동하게 됐다.

영벤처스는 다양한 학과 9명의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마치 독특한 개성을 지닌 영웅들을 한 데 모아놓은 어벤져스와 비슷해 영업의 '영'과 어벤져스를 합성해 '영벤처스'로 동아리명을 정했다.

취업동아리를 통해 기업 산업 분석 및 각종 공모전과 박람회 참여, 현직자 멘토링 등의 다양한 활동을 했다.

그중 현직자 멘토링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베지밀'로 유명한 회사 '정식품'에 근무하고 있는 졸업생의 멘토링을 통해 취업성공 노하우, 영업 관련 정보 등을 얻을 수 있었다. 특히 아직 실무 경험을 하지 않은 학생들에게 현직자의 시각을 공유해 줘 영업 직무 취업에 한 걸음 더 나아간 것 같다.

양질의 취업을 준비하는데 있어 취업 정보가 많은 영향을 준다고 생각한다. 취업동아리로 활동하면서 취업지원센터로부터 다양한 취업 정보 혹은 직무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또한 팀원들과 직무 정보를 교류하기도 하였다.

취업동아리로 많은 활동을 한 만큼 이를 활용해 내가 희망하는 업무, 직장을 구하고 싶다. 지금까지 학교 다니느라 취업 관련 정보를 얻을 시간이 부족했다. 그러나 취업동아리는 학교를 다님과 동시에 취업 준비도 할 수 있는 활동이다. 이번 2020년도에도 취업동아리를 잘 활용해 바늘 구멍같은 취업난을 뚫고 싶다.

삼육대학교 글로벌 역량 키우기 프로젝트

Project 1

서비스러닝
전공 교과목
(G-S-L)



Project 2

글로벌
창업연수
(창업여행
프렌즈)



Project 1.

서비스러닝 전공 교과목 (G-S-L)

서비스러닝 전공 교과목 중 ‘글로벌 서비스러닝’은 중국어학과에서 학습한 내용을 기반으로 세계를 무대로 하여 국외의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중국어와 중국문화,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소개하고 가르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전공에서 배운 이론들을 현장에서 적용하면서 이론과 실제의 유사점, 차이점 등을 비교하고 교수자의 역할을 통해 ‘敎學相長(교학상장)’을 체험하여 학문적 발달을 이루도록 한다.

중국어학과 카이신구어 G-S-L



참가자 후기

● 황준서(중국어·15)학우

평소 해외봉사에 관심이 많았으며, 필리핀, 태국과 더불어 대만으로의 해외봉사 경험은 일전에 깊은 추억으로 남아 있었다. 그러다 마침 이번 중국어학과 글로벌 서비스러닝 수업에서 베트남으로 해외봉사를 간다는 소식을 접하고 기뻐 지원하게 되었다.

학기 중 글로벌 서비스러닝 프로그램에서 교수님과 함께 봉사 계획을 철저히 준비한 뒤 베트남으로 떠났다. 베트남에선 영어가 제2 외국어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미리 들었기에 소통에 대한 많은 걱정을 했지만 현지 대학생들의 영어 실력이 뛰어나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했던 점이 인상 깊었다. 그들과 함께 대화하고 봉사하며 우물 안 개구리 같은 나의 편협한 안목을 세계화 시대에 맞추어 글로벌하게 확장시킬 수 있었던 좋은 경험이었다.

● 조민규(중국어·15)학우

처음에 글로벌 서비스러닝 수업이 어떤 수업인지 정확히 몰라 수강을 고민했다. 그러나 OT를 다녀와 베트남으로 해외봉사를 가는 수업이며, 봉사를 계획하고 직접 실천까지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 좋은 경험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하여 신청하게 되었다.

학기 중 수업에서는 베트남에 가서 한국 문화를 알려주는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 후 직접 베트남 현지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그중 봉사 활동의 개막식과 폐막식 때 공연을 한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한국 학생들이 한 조가 되어서 같이 태권도 격파 공연과 K-POP 공연을 하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했지만 무엇보다 기억에 남고 다들 정말 짧은 시간에 열심히 연습해서 준비를 했기 때문에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또한 글로벌 서비스러닝 수강 후 다른 문화와 언어에 적응하고, 외국인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져 외국인들과의 소통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었다. 글로벌 서비스러닝을 통해 해외를 경험하고, 학점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좋은 기회를 다른 학우들도 놓치지 않길 바란다.

Project 2.

글로벌 창업연수 (창업여행 프렌즈)

대학일자리본부 창업지원단에서는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삼육대학교 학생들의 글로벌 스타트업 시장 진출 조사 및 분석, 그리고 글로벌 기업가정신 함양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글로벌 창업연수를 시행하였다. 연수 기간 동안 알리바바, 신생활그룹, 폭스바겐 등 글로벌 스타트업 기반의 기업을 방문하여 현장에서 창업관련 다양한 프로그램과 수업을 통해 E-Commerce 창업 관련 글로벌 시장을 체험하였다. 또한 해외 진출을 목표로 하는 학생을 위해 글로벌 창업 현장 및 기업가 정신을 실제 현장에서 체험하고 분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은 많은 경험을 할 수 있었다.

글로벌 창업연수(창업여행 프렌즈)



참가자 후기

● 김지현(경영·15)학우

2019년 여름에 대외활동으로 창업 경진대회를 나갔었는데 재미있고 매우 유익한 시간이라서 이러한 프로그램에 관심이 생겼었다. 그리고 2019년 2학기 수업 <직업의 종말>이라는 책을 읽고 직장을 구하는 것만이 나의 미래의 도착점이 아니라는 것과 기업가정신(앙트레프레너십)에 대해 직접 느껴 보고 싶었고, 현재 중국어를 배우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 지원했다. 중국의 항주, 상해에 있는 알리바바, 폭스바겐, 명상창업특화단지(드림센터), 신생활 그룹 등 다양한 기업 탐방을 하면서 업계에 근무하고 있는 현직자들의 설명을 직접 자세하게 들을 수 있었고 질문할 기회도 있어서 좋았다. 특히 알리바바를 탐방했을 때 창업자 마윈이 기업을 설립했을 당시의 상황을 들었던 것이 가장 인상적이었다.

글로벌 창업연수를 다녀오고 나서 세상은 넓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는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현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국제화 역량이 필수적인 것임을 깨달았으며, 기술의 발달로 아이디어와 플랫폼이 성공의 요소임을 알 수 있었다. 당장 창업을 해야겠다는 생각은 아니지만 추후에 어디에서든 주도적으로 일을 하고 글로벌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생각해본다면 창업을 충분히 해 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 좋은 경험이었다.

